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의 문제점와 공개 API 를 통한 해결 방안 연구

Open API as a solution for the unification and fragmentation in online social network

김용근, Yonggeun Kim*, 변재범, Jaebum Byun**, 윤준성, Joonsung Yoon***

요약 사이버 커뮤니티(cyber community)는 다양한 사회학적 방법론을 통해 연구될 수 있다. 특히, 사회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에 기반하여 구성된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online social network)는 사회망분석방법을 통해 제반 현상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마누엘 카스텔(Manuel Castells)이 지적한 사회망의 문제점, 즉 참여(participation)와 개방(openness)에 따른 단일화(unification)와 단편화(fragmentation)의 문제는 사이버 커뮤니티의 특성으로 인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는 사이버 커뮤니티의 전자적 특성은 단일화, 단편화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 최근 들어 더욱 다양해진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의 공개 API(Open API)는 그러한 대안 가운데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망 분석법을 통해 드러나는 사이버 커뮤니티, 특히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개 API 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bstract There are many sociological methodology for the study on cyber community. Especially for the online social network which is constructed by the notion of the social network, the social network analysis can be a superior methodology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general phenomenon and the solutions for the problematic issues. As pointed by Manuel Castells, the problem of the unification and the fragmentation, which is came after the participation and the openness, is prevailed in cyber community by its characteristics. However, computational properties that exceed the limitation of the time and space can bestow other alternatives. The Open API in the social network services that is more popular in these days is the one of those alternativ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atic phenomenon of online social network and to search the solutions for those problems with the acceptance of Open API technology

핵심어: *cyber community, online social network, open API*

본 연구는 2008 년도 송실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주저자 : 송실대학교 미디어학과 석박사통합과정 김용근 e-mail: yonggeun@maat.kr

**공동저자 : 송실대학교 미디어학과 박사과정 변재범 e-mail: jaebum@maat.kr

***교신저자 :송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윤준성: e-mail: dryoon@maat.kr

1. 서론

사이버 커뮤니티는 다양한 사회학적 요소를 포함한다. 즉 현실사회를 복제, 반영하는 것을 뛰어넘어, 사회구성원 사이의 연결망을 새롭게 조직하고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사이버 커뮤니티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학적 관점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이 중에서도 사회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회망(Social Network) 기반의 사이버 커뮤니티 연구는 사회의 개별 구성원 혹은, 구성단위를 그래프 기반의 네트워크로 이해하고 이들의 상호관계를 연구한다.

마누엘 카스텔(Manuel Castells)이 주장한 사회망 분석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회 현상을 기술한다. 20세기 들어 가속화된 기술의 발달은 급격한 사회 변화를 수반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은 기술발달의 반영을 넘어 사회 구조의 핵심 동인이 이동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카스텔은 이러한 동인의 분석에서 유의미한 것들의 이동에 관심을 둔다. 정보사회라는 개념을 통해 그는 의미관계 형성과 그에 따른 자본과 정보의 이동을 통해 사회 현상을 설명한다. 이는 고도로 발달된 컴퓨터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 카스텔은 정보와 자본의 비등가 교환과 컴퓨터 기반 기술의 발전에 주목한다. 교환과 잉여에 기초한 의미의 생성은 명백히 자본에 대한 연구지만, 정보의 교환과 컴퓨터 기반 미디어의 영향에 대한 언급은 현실 사회의 지평을 넘어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연구의 주요 기반이 된다.[1]

한편 질 들뢰즈(Gilles Deleuze)와 펠릭스 가타리(Felix Guattari)는 매체 안에서 발견되는 폭압적인 의미망의 생성과 이의 대안을 주장한다. 리좀적 배치(rhizomatic assemblage)로 대변되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주장은 탈중심화(decentralized)된 의미망의 생성을 통해 단중화(monoculturalization)된 의미망과 그 폭력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다.[2]

본 연구의 위의 두 가지 주요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공개 API를 통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사회망 구조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사회학(sociology)은 사회 현상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현상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분석, 추출할 필요가 있다. 사회망 분석은 그래프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사회 구성 요소의 행동과 의미, 그리고 상호 영향에 대해 연구한다.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카스텔은 자본의 전지구적 이동을 고찰하고 이를 통한 의미망의 형성에 대해 논구하였다.[3] 이는 사회망 형성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기술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개인의 활동과 가치가 증대되는 오늘날의 사회현상은 개인 미디어의 증가, 통신기술 발전

등에 힘입은 바 매우 크다. 특히 인터넷은 사회구성원의 네트워크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카스텔에 의해 지적된 바와 같이, 컴퓨터 기술의 발달은 급속하게 전개되었다. 미국에서 라디오가 6,000만 명에게 보급되기 위해 걸린 시간은 30년이었지만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은 개발 직후 단 3년의 시간이 걸렸을 뿐이다.[1]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가 사회망 분석과 기술 패러다임의 동시적 이해를 통해 조망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서 주로 제기되는 문제점은 현실의 소셜 네트워크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사이의 관계이다. 카스텔에 따르면 여기에는 어떠한 분명한 근거나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둘 사이의 명확한 역학 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성급한 단계이다.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의 영향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초기에 비하여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사용자의 특성과 현실 사회망의 상호관계를 통해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가 다양한 형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가진다.[1,4] 물론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의 지적하듯 오늘날의 온라인 사용자는 명백히 엘리트적이다.[5]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의 문제가 컴퓨터 기반 의사소통 장치들과 이의 사회문화적 활용에서 비롯되는 문제라는 점이다. 때문에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은 관계맺기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정보의 비등가적 교환에서 비롯된다. 기술 기반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출현이 문제점을 내포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의사소통, 즉 의미와 기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창조와 전달이 언제나 동시적이지 않다는 들뢰즈의 말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하다.[6]

2.2 개방과 참여, 그리고 문제점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경험 가운데 개방(openness)과 참여(participation)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7] 이 두 가지 핵심 가치를 통해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는 소통(communication)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달성한다. 그런데 개방과 참여라는 두 성향은 각각 단일화(unification)와 파편화(fragmentation)로 변질될 수 위험을 안고 있다. 단일화와 파편화는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의 근원적 목표인 소통에 장애를 일으키며 사회망을 붕괴시키는 직접적 요인이 되기도 한다.

2.2.1 개방(openness)과 단일화(unification)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 있어 개방(openness)이란 더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의사개방성(pseudo-openness)과 교묘한 범립 관계에 놓여 있다. 개방성은 의미망에 투입 가능한 정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개방성, 열려 있음은 새로운 의미 주체의 다양한 역할을 기존의 의미망이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도를 뜻한다. 의사 개방성은 개방성과 달리 의미망이 얼마나

쉽게 팽창 가능한가와 관련이 있을 뿐이다. 의사개방성을 확보한다고 해서 사회망의 구성원의 역할이 더 중요시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점은 의사개방성이 본질적인 개방성과 반드시 함께 표출된다는 점이다. 때문에 본질적 개방성은 일정 한계를 초과할 경우 단일화(unification)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7] 사회망 이론 기반의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는 노드(node)와 노드 사이를 잇는 간선(edge)에 의해 유지된다. 이 간선은 다양한 종류의 지위(position)와 관계(relation)를 의미한다.[7] 결국 간선은 노드와 노드 사이에 대한 정보이며 간선이 사라지면 네트워크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네트워크에 있어 중요한 것은 간선의 형태로 표현(representation)되는 정보이다. 따라서 네트워크는 노드와 간선의 명확함과 충분한 수효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통계적 관점에서 신뢰성을 증가시키는 노드의 수효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노드의 수효를 증가시키기 위해 네트워크의 크기를 과도하게 증가시킬 경우 개별 노드에 해당하는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의 개별 사용자에게 지나친 단일화를 요구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공중파 텔레비전을 통해 구성되는 가상의 네트워크는 각 채널을 통해 신뢰성 있는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지만 시청자 개인의 다양한 욕구는 제한되기 마련이다. 지나친 개방성이 네트워크 구성원의 단일화를 강요하게 되는 것이다.[3]

이러한 경향은 TV 뿐 아니라 소규모의 온라인 공동체,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양적으로 성장한 소셜 네트워크라도 이러한 단일화 경향을 극복하기는 어렵다. 소규모 전자 공동체가 급격한 팽창을 지속할 경우 커뮤니티는 큰 기로에 놓이게 된다. 이는 자본의 의미망 속에서도 역시, 발견할 수 있는 점이다.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유하는 경제 주체가 일탈적 행위를 통해 스스로의 존립을 유지하는 것은 단일화가 내포한 폭력성이 극대화된 경우이다. 양적으로 팽창한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서 흔히 발생하는 규칙 위반의 문제, 구성원의 자격 심사, 네트워크의 분화(분열) 등의 원인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의 일부 구성원들이 강렬도(intensity)가 높아진 단일화에 저항할 때 발생한다.

인터넷에서는 수많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가 부침을 반복한다. 새로운 소규모 커뮤니티를 비롯해 대형 포털 사이트로 발돋움하려는 새로운 시장 진입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네트워크가 출현한다. 실패로 귀결되는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를 분석할 때 가장 손쉬운 접근은 사용자의 욕구에 대한 수동적 대처를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불만족이라는 관점은 여전히 소비자나 생산자의 이분법에 갇혀 있다. 오히려 정보의 가치가 증대되고 자본과 동일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점에서 정보, 곧 자본을 창출하고 있는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을 소비자로 지칭하는 것이 합당한가 문제의 핵심이다. 지적이 지적한 대로 의미망 기반의 사회에서는, 분기하는 주체, 곧 가분자들(dividual)이 구성하는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로 파악해야 단일화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5] 결국 단일화로 귀결되는 네트워크의 분열 문제가 소비자의 욕구 불만으로 설명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서로 다른 네트워크가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충돌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2.2.2 참여(participation)와 파편화(fragmentation)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서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장치는 네트워크의 파편화를 초래하게 된다.[7] 사회망 이론에서 네트워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며 하위 네트워크 혹은 분산 네트워크의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동일한 논리(logic)에 의해 구성된 네트워크라도 구성원을 연결하는 간선의 종류, 즉 관계의 정보가 분화되거나 전이되기 때문이다. 지상파 텔레비전이 시청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채널의 수를 증가시키고, 케이블 텔레비전과 같은 보조 채널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기존의 공중파 텔레비전을 통해 구성한 사용자의 네트워크를 다른 형태의 네트워크로 분화(divergence)시키는 행위이다.[3] 이와 같은 분화 과정이 지속될수록 네트워크에 묶여 있던 사용자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 파편화(fragmentation)될 수 밖에 없다.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게 되면 커뮤니티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과는 별도로 더 많은 하위 네트워크, 혹은 개별 네트워크를 양산하게 된다. 사용자들은 처음 커뮤니티에 가입했던 욕구와 별개로 변화된 욕구에 부합하는 또 다른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이러한 파편화가 심화될수록 사용자의 소속감이 약화되게 된다.

소속감의 약화가 향하는 종착지는 정보의 부재이다. 네트워크의 핵심은 등가적, 비등가적인 정보의 교환을 통해 발생하는 관계망이다. 관계망은 정보가 교환될 때에만, 즉 그것이 작동할 때에만 가치 있는 것이 된다. 파편화된 상황의 개인은 관계망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파편화가 가속화될수록 관계망의 노드는 수효가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관계망 자체의 붕괴에 이르게 된다.

3. 공개 API의 의미

들뢰즈는 책이 의미를 만들어내는 형태 자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보았다. 리좀(rhizome)은 그러한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이다. 리좀은 다양한 양상을 잉태한 단위가 배치를 통해 의미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다.[2] 책은 리좀적인 배치(rhizomatic agencement)에 따라 외부와 연결되며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다. 이러한 방법은 배치의 안과 밖을 가로지르는 분절된 의미의 생성이다. 리좀적인 의미망의 구성이란 단일한 무엇으로 귀속되지 않는 탈중심화(decentralized)된 의미망의 생성이다. 들뢰즈가 책을 언급하며 리좀적 의미망에 대하여 논한 것은 중심화된 의미망의 생성이 책에서 가장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책은 하나의 원리를 통해 내재하는 모든 요소를

귀속시킨다. 책은 의미의 단일화, 통일성을 통해 내부의 요소들에 폭력을 가한다. 내부에서 결속된 책의 의미는 강렬한 의미망의 구축을 통해 단일화된다. 이 단일화의 강렬도가 증가할수록 의미망의 외부에 더욱 폭력적인 힘을 가하게 된다.

싸이월드도 국내에서 가장 성공한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모델이다. 싸이월드는 일촌과 도토리라는 방법을 통해 회원들의 관계망을 구성한다. 일촌을 맺지 않고 도토리가 오가지 않는 회원은 존재하지 않음과 같다. 아무런 의미의 교환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일촌과 도토리를 통해 관계를 맺은 회원들은 강한 강렬도를 통해 폭력적 의미망을 구축한다. 이 의미망이 폭력적인 것은 관계 지 않음과 존재 하지 않음이 등가관계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싸이월드 내부에서 의미망을 형성하는 규칙은 단일화(unification)된다.

이러한 폭력이 더욱 구체화되는 것은 싸이월드라는 단일한 네트워크가 외부의 네트워크와 만들어 내는 일방적 의미망의 생성이다. 싸이월드가 배타적인 이유는 싸이월드가 외부에 대해 일방적인 의미망의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싸이월드로 포섭되지 않는 모든 잠정적 무의미의 집합들, 기의 없는 기표들의 집합은 싸이월드에 침투할 수 없다. 싸이월드는 가입의 편리함, 인지도, 네트워크의 거대화를 통해 개방성을 획득한다. 그러나 이는 의사개방성(pseudo-openness)일 뿐이다. 의사개방성에서 비롯되는 네트워크의 확장을 통해서만 싸이월드는 존재할 수 있다. 싸이월드에 단방향으로 포섭되지 않은 모든 기표들은, 때문에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싸이월드에서 의미는 오로지 내부로 포섭된 것들에만 부여된다. 도토리와 일촌이 싸이월드 밖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듯, 싸이월드 바깥에 존재하는 것들은, 도토리와 일촌맺기가 작동하지 않는 영역에 존재하므로 역시 무의미하거나 혹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싸이월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서 파편화와 단일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는 탄력성(flexibility)이다. 여기서 말하는 탄력성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의 안과 밖을 동시에 가로지를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이다.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지젝은 사회망의 구성원을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 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파편화되지 않고 하나의 네트워크가 단일화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안팎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구글(Google)은 2007년 11월 오픈소셜 API(OpenSocial API)를 공개하였다.[8] 구글은 창업 초기부터 다양한 공개 API를 선보이며 프로그램 개발자들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오픈소셜 API의 핵심은 다양한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를 하나의 API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오픈소셜 API를 통해 개발자는 다양한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서 여러가지 정보를 손쉽게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근본적으로 공개 API는 네트워크의 경계를 무력화시키는 장치이다. 구글 오픈소셜 API에서 알 수 있듯 각 사이트의 독립된 공개 API는 오픈소셜 API를 통해 통합된다. 일반적인 네트워크는 통합, 분열의 과정에서 기존의 네트워크를 파괴시킨다. 네트워크의 구성원은 하나의 층위에 복속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의 네트워크에서 개별적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었다. 이는 19세기, 하나의 귀속지위를 통해 개인의 모든 사회망이 결정되었던 시기와 다를 바 없다. 컴퓨터 기반의 전자적 사회망은 이처럼 단종화된 사회망을 다층적인 구조로 바꾸어 버렸다. 지젝이 표현한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 들뢰즈가 말한 '지층(strata)', 카스텔이 언급한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 등은 모두 다층적인 네트워크가 개인의 층위에서 겹쳐지는 것에 대한 서로 다른 표현이다.[2,4,5] 전술한 단일화와 파편화의 문제는 중첩된 별개의 지층이 포개어진 다른 지층을 파괴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개인의 관계망 층위가 여타의 관계망 층위를 압도할 때 발생하는 것이 파편화이며, 복수의 층위 가운데 하나의 사회망이 압도적인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단일화이다. 이는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온라인에서는 하나의 커뮤니티가 곧 하나의 층위를 형성한다. 이러한 층위를 실재 없이 이동하는 개인은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가 된다. 결국,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단종화와 파편화의 문제는 구성원이 중첩된 네트워크의 지층들 사이를 얼마나 탄력성 있게 이동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사회망의 지층 사이를 탐험하는 개인은 스스로의 움직임에 의해 각각의 지층을 침해하지 않고 개인의 의지에 따라 수많은 지층을 재배치하여 의미를 생성할 뿐이다. 공개 API는 이러한 지층 사이의 전이를 보조하는 수단이 된다.

4.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서 공개 API의 역할

파편화와 단일화의 문제는 사회망의 발전에 있어 필연적 과정이다. 사회망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 커뮤니티, 즉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또한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과정이다.

공개 API를 통해 사용자는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의 데이터베이스에 우회적으로 접근하여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정보를 처리하고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은 정보에 대한 탄력성을 보장한다. 카스텔은 사회망 속의 구성원이 정보의 수용자가 아니며 정보의 처리자라고 주장하였다.[1] 지구에 흩어져 있는 거대도시들의 네트워크는 정보의 보관소인 동시에 처리장소이다.

뉴욕과 도쿄의 관계를 지리적 특성만으로 환원할 수는 없다. 두 도시의 관계는 대도시 네트워크라는 전체의 관계망 안에서만 조망할 수 있다. 만약 뉴욕이 중요한 도시라면 그 이유는 그 도시가 거대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많은 정보를 가장 독보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안에서 뉴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기능(function)이 곧 의미(meaning)가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의 구성원은 공개 API 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정보를 재가공하고 이를 또 다시 배포한다. 이 과정을 통해 구성원은 새로운 층위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동시에 기존의 네트워크에 어떠한 폭력적인 재구성, 재조직을 수행하지 않는다.

4. 1 단일화에 대한 대안

공개 API 는 사회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정보의 처리와 집중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공개 API 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사용자의 욕구에 맞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서비스 프로바이더인 온라인 소셜 커뮤니티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다. 앞서 밝힌 것처럼 네트워크 관점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은 단편화와 단일화이다. 공개 API 를 통한 정보의 집중은 사용자에게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개인 사용자는 온라인 소셜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단순히 정보를 집약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여 새로운 관계와 지위를 정립할 수 있다. 또한 공개 API 는 새로운 층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동시에 기존의 네트워크와 상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개 API 의 활용을 통해 단일화된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는 새로운 층위를 덧붙임으로써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유연하게 재조정한다. 의사가방성이 네트워크의 복속을 초래하고 중심화된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공개 API 를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의 층위는 네트워크의 경계에 구멍을 내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단일화를 방지한다.

4.2 파편화에 대한 대안

파편화의 핵심 문제는 기존의 네트워크가 가지는 관계가 구성원의 수용범위와 너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구성원은 네트워크에서 고립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공개 API 를 통한 새로운 네트워크, 곧 정보관계의 구축은 기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완전히 새로운 네트워크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네트워크를 변용하고 조화롭게 하여 새로운 정보 관계를 생성한다는 점은 파편화된 사회 구성원이 새로운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거나 기존의 네트워크에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권력관계에 의한 네트워크의 결합에서 벗어나 다양한 층위의 네트워크를 재배치하는 공개 API 는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의 구성원을 정보 교환의 주체로 격상시킨다. 독점과 은닉에서 탈피한 정보생산자의 출현을 통해 네트워크의 구성원은 스스로의 욕구에 충실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능은 기존 커뮤니티의 의미망과 병립할 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사이버 커뮤니티의 다양한 문제점은 온라인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외형만을 달리했을 뿐 본질적인 면에서 실제 사회에 존재했던 다양한 문제들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공개 API 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우리는 단일화와 파편화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공개 API 가 몇몇 선도적인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더 많은 온라인 서비스 공급자들이 더욱 다양한 정보를 일정한 양식을 통해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는 사회망 기반의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넘어서서 인터넷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반적 경향이 될 것이다. 공개 API 를 넘어서는 열린 기술을 통해 사이버 커뮤니티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실마리가 더욱 심도 있게 다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에서 비롯된다.

참고문헌

[1] 마누엘 카스텔,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한울아카데미, 2003.

[2] G. Deleuze, F. Guattari, and B. Massumi,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7.

[3] F. Webster, *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Routledge, 2002.

[4] 마누엘 카스텔, *인터넷 갤러리*, 한울아카데미, 2004.

[5] 슬라보예 지젝 et al., *신체 없는 기관*, 도서출판 b, 2006.

[6] 질 들뢰즈, *대담 1972~1990*, 솔, 1993.

[7] J.V. Dijk, *The Network Society: Social Aspects of New Media*, Sage Publications, 1999.

[8] "OpenSocial API Blog: The web is better when it's social" ; <http://opensocialapis.blogspot.com/2007/11/web-is-better-when-its-social.html>.